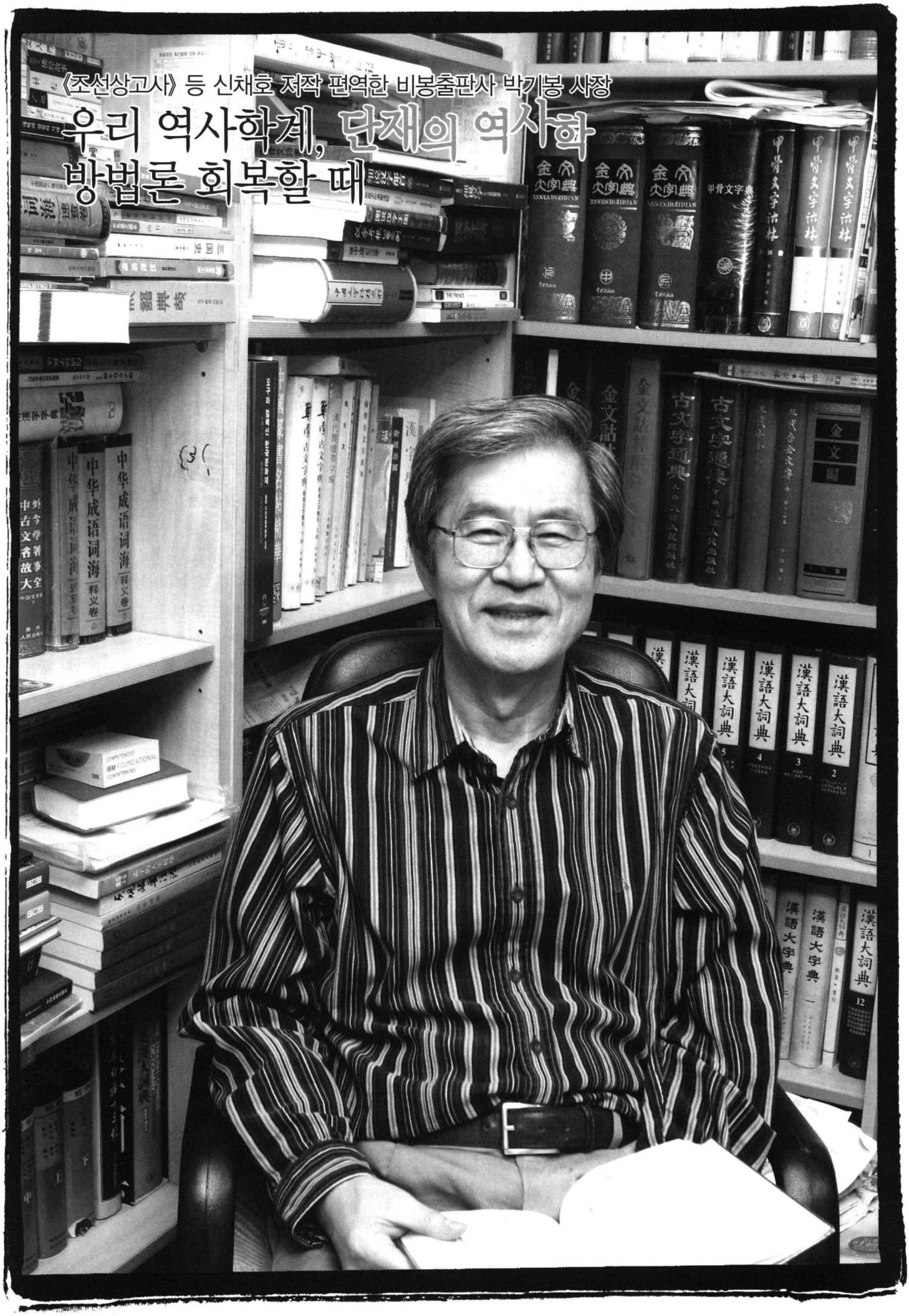

《조선상고사》 등 신채호 저작 편역한 비봉출판사 박기봉 사장

우리 역사학계, 단재의 역사학 방법론 회복할 때

어둑해 보이는 사무실에 들어서자 기자 일행을 반기는 것은 온통 한자로 제목이 박힌 책들과 그 책들을 보듬고 있는 빼곡한 서가였다. 그곳에서 비봉출판사 박기봉 사장은 하루 12시간 동안, 옛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들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한자(漢字), 한문(漢文)들과 한판 씨름을 벌인다.

몇 해 전 인기를 모았던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은 '성웅' 이순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하면서 우리 사회에 새로운 리더십의 전형을 소개한 바 있다. 그러나 드라마를 가만 보다보면 '맞수' 원균이 있었기에 이순신의 리더십이 가능했던 것 아닌가 하는 묘한 마음의 끌림을 받은 기억이 모두들 있을 게다. 실제로 드라마는 이순신도 이순신이지만, 용장(勇壯) 원균의 멋진 풍모를 호방하게 보여주었다. 이후 원균 재평가 작업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났고, 그대로 굳어지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박기봉 사장은 원균 재평가를 "호기심을 유발하는 일부의 장삿속"이라고 평했다. 사실 박 사장이 이순신에 관심을 갖게 된 사연은 이렇다. 하루는 은사인 민족문화추진회 조순 회장이 부르더니 정조 때 문헌인 《충무공이순신전서》(忠武公李舜臣全書)를 번역해 보라고 권유했다. 이미 어린 시절부터 한자와 한문을 익혀온 터라, 은사인 조순 선생도 그를 믿고 일을 맡긴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이순신 관련 사료의 완벽한 정리와 이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박 사장은 《선조실록》과 《징비록》 《간양록》은 물론 중국 명나라 때 문서에서 이순신 관련한 글을 모두 뽑아 《난중일기》를 축으로 새롭게 배열했다. 그렇게 2년간 꼬박 작업을 해서 선보인 것인 바로 《충무공이순신전서》(전4권)이다. 이 책으로 원균 재평가 작업은, 속된 표현으로 꼬리를 내렸다. 박기봉 사장은 이렇게 책의 출간 의미를 설명한다.

"당시 원균과 한 패가 되어 이순신을 모함하던 자들처럼, 민족 최고의 성웅(聖雄)을 지금에 와서 또다시 모함하고 깎아 내리려는 시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역사가 왜곡되는 현상이 어찌 이순신뿐이겠는가. 그래서 박기봉 사장이 최근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단재 신채호 선생의 책들을 오늘의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다. 신채호 선생의 글은 국한문혼용체라고는 하지만, 조사를 제외한 대부분이 한문으로 되어 있어 현대인들이 읽기는 쉽지 않다.

박기봉 사장도 이미 30년 전, 자신이 한문에 일가견이 있다고 자부했던 시절에 《조선상고사》(朝鮮上古史)를 읽으려다 능력 밖이어서 포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 박 사장에 따르면, 《조선상고사》를 비롯 신채호 선생의 작품을 읽기 위해서는 《자치통감》 《삼국지》 등 사서의 원문은 물론 우리말 고어체 문장에도 능통해야 한다. 결국 박 사장의 지난 30년 독서경력은, 그 자신의 표현처럼 "이 일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이었던 셈이다.

지난해 연말 《조선상고사》를 선보인 데 이어, 조만간 박기봉 사장은 《조선상고문화사》(朝鮮上古史)를 펴낼 예정이다. 또한 신채호 선생이 중국 망명 기간 중 집필한 《천고》(天鼓)를 역시 출간을 기다리고 있다.

향후 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박기봉 사장은 "내 역할은 지금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데까지"라면서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답을 이미 70여 년 전에 신채호 선생이 제시해 주었다. 이제는 후학들이 나서서 주변국의 주장을 잠재울 수 있는 더 깊은 연구를 추진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역사학계가 단재의 역사학 방법론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뼈있는 일침으로 인터뷰를 정리했다.

취재_장동석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